

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의의와 정책개발 방향 (The significance of current status for laboratory safety and direction of policies)

노영희[†]

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
(rohyh@kribb.re.k[†])

대학 359개, 연구기관 245개, 기업부설(연) 4,062개 등 총 4,66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. 조사 항목은 기관의 안전관리 운영 체계, 예산운용, 보험가입, 교육훈련, 건강검진, 사고현황 등 80여개 세부항목을 조사하였다. 응답기관은 3,413개 기관으로 전년 1,464기관 대비 기업부설(연)을 중심으로 130% 이상(1,949기관) 대폭 확대되었다. 연구실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'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'의 대폭개정(2015.7), 연구실안전 국가사업의 운영 체계 개편(2015.4)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.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하여 수요자 편의 도모 및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,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전면 재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.

본 조사에서는 기관유형별로 전담인력 및 조직운영, 보험가입, 안전교육, 안전진단 등 세부항목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. 또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실험실 유형별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, 각 조사항목과 법령이행 정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.

키워드 : 연구실 안전관리,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, 실태조사,